2019년 한·중 해양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결과보고 (국외출장 결과 보고)

2019. 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해양연구본부

1. 세미나 개요

○ 일시: 2019. 10. 30(목) 08:30~17:00

○ 장소: 중국 웨이하이 동산호텔(东山宾馆)

○ 주제: 한중 해양공간관리계획과 도서관리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 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중국 제1해양연구소

○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참석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제1해양연구소, 산동해양경제문화연구원, 한중해양공동연구센터 등 20여명

2. 세미나 일정

구분	주요 내용
08:40~09:00	등록 및 인사말
09:00~09:50	제1주제 : 한국의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과 향후 과제 – 발표 : KMI 최희정 전문연구원
09:50~10:40	제2주제 : 중국의 연안공간 계획체계 진전과 향후 전망 – 발표 : FIO 왕징(王晶) 연구원
10:40~11:00	Coffee Break
11:00~11:50	제3주제 :한국의 무인도서관리정책 변천과 향후 과제 – 발표 : KMI 정지호 부연구위원
11:50~14:00	오찬
14:00~14:50	제4주제 : 중국의 해도생태지수 연구 진전과 향후 전망 – 발표 : FIO 조우진샤(赵锦霞) 박사
14:50~15:40	제5주제 : 칭다오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 – 발표 : 산동해양경제문화연구원 박문진 박사
15:40~16:00	Coffee Break
16:40~17:00	종합토론 – 중국: 장즈워이(张志卫)박사, 왕융즈(王勇智)박사, 초우칭센(曹庆先)박사 – KMI: 목진용 본부장, 최지연 부연구위원, 김대경 박사

3. 발표 내용

○ <별첨 1> 발표자료집 참조

4. 토론 내용

<장즈워이> (FIO 연구원)

○ 그 동안의 발표를 보면 큰 틀을 볼 수 있는 데 한국의 연안관리와 도서관리 정책이 점점 제도화 체계화되고, 생태화되고 있다. 그리고 도서 관리도 기존의 유형분류에서 구체적인 관리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해양공간관리계획도 시도지사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 질의1: 해양공간계획 수립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최희정 박사) 해양공간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이다.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5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에서는 제도의 이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향후 인식증진이나 교육에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 다음으로 어려운 점에 해양공간계획에 미래의 수요를 어느정도 반영하여야 하는가가 고민이다. 지금은 현재의 활동현황을 중심으로 평가해서 구역하고 있으나 해상풍력이나 해양관광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사업지역의 해양공간계획의 유형 중 에너지 개발구역으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해상풀역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많지만 구체화되지 않아서 해양공간계획에 에너지 개발구역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이러한 미래 수요를 어떻게 담을 것이며, 이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어떻게 조사해서 반영할지가 고민이다

○ 질의2: 무인도서의 조사와 분류의 근거는?

- (정지호 부연구위원) 무인도서의 조사는 무인도서조사지침에 따라 조사하는데 지침에는 조사항목 등이 있다, 관리유형 지정은 무인도서 유형분류지침에 따르고 있는데 이 지침은 외부 공개는 되어 있지 않다. 유형분류는 절대보전, 준보전, 개발가능, 이용가능의 순서로 분류한다. 예컨대 절대보전과 준보전 무인도서는 이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도서들이다. 그 다음은 개발가능도서를 분류하는데, 육지와의 근접성과 도서규모 등이 고려된다.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이용가능 도서로 분류한다.

<왕융즈> (중국제1해양연구소 연구원)

○ 한중 양국의 도서관리와 공간계획에서 상호 배울 점이 많다.

○ 질의1: 해양공간계획관리시 격자 방식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매우 좋으며, 자연속성과 개발현황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는 중국에서 해양주체기능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해양공간의 사

회특성을 먼저보고 자연특성을 그 다음으로 본다. 중국에서는 상충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 (최희정 박사) 해양에는 경계가 없어서 격자를 이용한다. 예컨대 보호해양생물이 출현한 지역은 점으로 표시되고, 해사채취 지역은 면으로 나타난다. 무인도서의 경우 주변해역 1키로미터까지 포함해서 격자내에 들어오연 속성값이 1을 준다, 다양한 정보를 격자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 질의2: 한국은 무인도서 유형 구분을 보전과 개발, 이용으로 구분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중국과 한국의 도서 유형 구분의 차이점은?

-(정지호 부연구위원)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크지 않다. 한국도 절대보전과 준보전을 먼저 분류한다, 보전이 필요한 도서를 우선 구분하고, 나머지는 개발가능이나 이용가능으로 분류하므로 중국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조우칭센 박사>(중국 제1해양연구소 연구원)

○ 기술측면과 관리측면에서도 발표가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무인도서 홍보교육을 관심있게 들었다. 중국도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질문1: 해양공간계획에서 어업용도구역에 관해서 질의하자면, 지정시 기존의 양식장, 어획량, 어업활동 등을 참고로 한다고 했는데, 평가항목에 면허어업권이 있는데, 면허어업권 허가기준은?

- (최희정 박사) 양식시설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양식장 허가를 하는데, 허가받은 특정공간에 대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목진용>(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질의1: 2019년 중국 중앙국 국무원의 국토공간계획체제 감독 시행에 관한 의견(중발2019 18호)으로 기존에 수립된 계획들간의 현실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이 의견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기에 기존에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된 계획들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 (왕징 박사) 자연자원부의 설치로 육상과 해양공간계획을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육상계획이나 공간계획이 대부분 2020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립되는 계획들은 이 지침에 따라 수립될 수 있으므로 향후계획들은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 국토계획 수립시 고려할 상황과 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시 고려할 요소가 다른데 어떻게 양 분야 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 (왕징 박사) 국토공간계획체제 감독 지침에 관한 의견은 금년 발표되었지만, 2020년까지 구체적인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1차적으로 국토공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세부계획으로 교통 등 분야별 계획이 수립되며, 정부차원과 시차원의 계획이 먼저 추진되고, 하위 지방정부의 계획이 수립될 예정임. 또한 국토공간계획 수립되기 전에는 공간개발 적합성 등도 평가할 예정임. 그리고 국토공간계획이 우선 수립되고, 국토와 연안해양을 어떻게 통합할 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내년 세a;l | 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

<최지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질의1: IDI 지수와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는 더하고, 부정적 효과를 감한 이유는?

- (조우진샤) 80페이지 표에서 내용이 누락되었는데, 불법개발 등도 포함되어야 하며, 위 4개는 긍정이고 불법개발등 추가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10점)

○ 질의2: 종합적인 결과와 랭킹으로 나타났는데, 삶의 질, 생태환경이 과연+가 될 수 있는지 회의가 된다. 경제적인 지수와 삶의질 생태환경지수를 분리해서 발표하면 어떨까?

- (조우진샤) 중국은 홍보나 결과 공유체제가 부족하므로 랭킹을 통해 국민 인식증진 효과를 노린다. 삶의 질 등은 별도로 랭킹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 보겠다.

○ 질의3: 칭다오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일자리나 세수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점이 있는가.

- (박문진 박사) 이러한 기업이 일자리나 세수 창출에는 거의 도움이 안된다. 반면에 청도나 서해신구에 대한 홍보, 해양경제발전 시범도시 선정시 이러한 기업의 입주로 가점을 받는다.시범도시로 지정되면 국가 재정에서 500억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신모델로서 다른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

<김대경>(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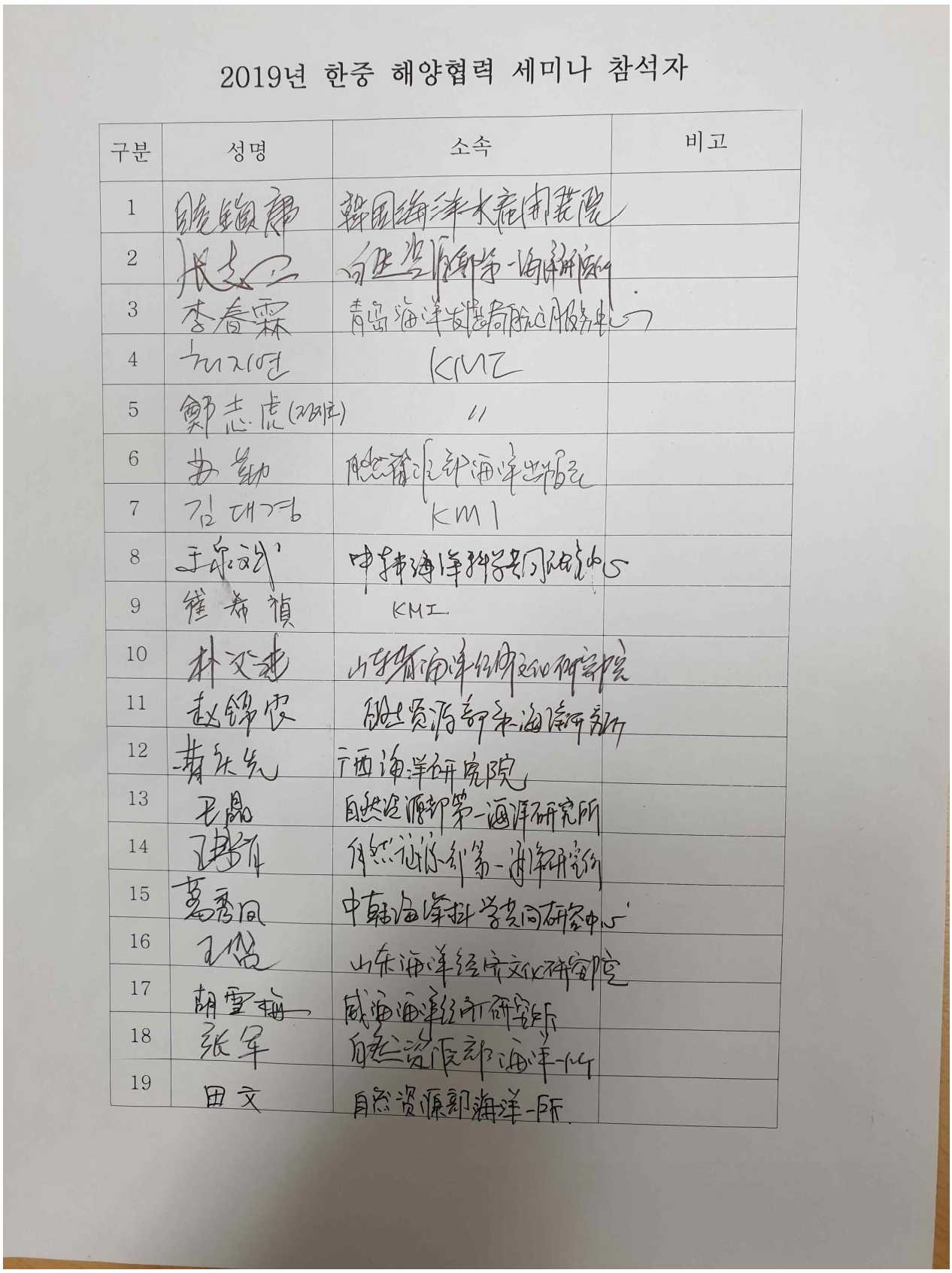
○ 문1) 해도생태지수(IDI) 한국의 무인도서 평가에도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랭킹을 위해서는 신뢰도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어떤 자료를 활용하는지?

- (조우진샤 연구원)데이터 수집은 4가지 방법으로 한다. 자연적인 자료는 원격탐사나 위성을 활용하고, 공식적인 기존 자료도 참고한다, 도서관리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하는 도서 중 몇 개를 선정해서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 해양유전자원에 대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법제측면에서 산업 지원이 가능하다. 중국은 나고야 의정서의 당국이며, 운난선 등 지방정부에서는 유전자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산둥성도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계획은?

- (왕융즈) 해양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산둥성도 필요시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 1 **참석자 명단**



2019년 한중 해양협력 세미나 참석자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2			
3			
4		KMI	
5		〃	
6			
7		KMI	
8			
9		KMI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참고 2 회의사진(포럼)



<그림1> 한중 해양정책세미나 기념사진



<그림2> 한중 해양경제포럼 양국 대표



<그림3>한중 해양정책세미나 장면1



<그림4> 한중 해양정책세미나 장면2

참고 3 **세미나 자료집**

2019 한·중 해양협력 세미나

2019 China-Korea Symposium on Maritime Cooperation

2019. 10



KMI
KOREA MARITIME INSTITUTE

FIO
THE 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SOA

JORC
Joint Ocean Research Center in Qingdao, China, since 1995